

2022년 3월 11일 메시지

동일본대지진과 원전 사고로부터 11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현 내를 횡단하는 도로의 전면 개통, 일본술 금상 수상횟수 연속 일본 최고갱신이라는 쾌거,

후쿠시마현산 톱 브랜드 쌀 '후쿠, 와라이'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

농산물 수출량이 과거 최다를 기록하는 등 부흥을 향한 빛이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향을 떠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외로부터의 후쿠시마에 대한 인상이 바뀌지 않은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도 이 1년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은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흥은 살았던 곳이나 피해의 크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의지하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의 부흥에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탱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라마치고등학교 사토 나나카 씨)

전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지금만큼

사람들의 온기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소중함을 느낀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 이후 후쿠시마에 마음을 보내주고 계신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아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후쿠시마의 지금을 알리고 실제로 접해서 맺게 되는 새로운 '인연'과 함께

보다 따뜻한 화합을 만들어 내고 '유대'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개최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무관객 개최로 인해 많은 분들을 후쿠시마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후쿠시마의 현재 모습을 느끼게 해드릴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흥을 향한 마음의 불을 밝힌 성화는

원전사고 수습 대응을 위한 최전선의 거점이 되었던 J 빌리지를 출발해 현내 각지를 돌고,

도쿄 국립경기장에서는 나미에마치에서 생산한 수소를 연료로 하여

선수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원하며 온 세상을 희망의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후쿠시마 아즈마구장에서는 야구·소프트볼 경기 일본 국가대표선수들이 활약하여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 금메달을 향한 커다란 발판이 되었습니다.

외국 선수들, 스태프분들로부터는 후쿠시마의 맛과 환대에 대한 칭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유산을 다음 단계의 교류로 이어나가 크게 키워 나가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사카카이세이고등학교 시시도 에미 씨)

피난생활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3 만 명을 헤아리고 있는 가운데

모든 마을에서 대피할 수밖에 없었던 후타바마치를 비롯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고향에서는

올해 일부 대피 지시가 해제되어 시간이 움지이기 시작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가는 것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다시 '지역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다 함께 노력하면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속도 대로 한 걸음씩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 하는 도전을 계속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모습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후쿠시마를 거점으로 하여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표현해 나갈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눈 앞에 있는 사람을 웃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네히키고등학교 기쿠치 미온 씨)

그날, 아직 어렸었던 아이들이 걸어온 길은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진 재해와 마주하고 극복하려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느끼며

튼튼한 젊은이로 성장하여, 눈길은 제대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이름의 배턴을 다음 세대에 이어 나감으로써

후쿠시마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일단 <후쿠시마>라는 딱지를 떼고 후쿠시마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식이나 물건이라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담아 만들었는지.

사람이라면, 무엇을 경험하여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우선 하나 하나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즈가쿠호고등학교 노기 모에리 씨)

세계는 지금 SDG s 라고 하는 17 개의 공통 목표를 내걸고

다음 세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대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복합적인 재해라는 역경을 전력을 다해 극복해 둘도 없는 고향을 되찾아

미래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SDG s 이념을 구현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현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18 번째 목표로 '후쿠시마 부흥'을 내걸어

전세계에 대한 공헌으로도 통한다는 사실을

후쿠시마로부터의 희망 메시지로 전달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담당할 젊은이·어린이들과 함께 '후쿠시마 프라이드'를 이어가면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모든 현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힘차게 도전하여

한걸음씩 한걸음씩 부흥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것을 이곳에서 다짐합니다.

2022 년 3 월 11 일

후쿠시마현 지사, 우치보리 마사오